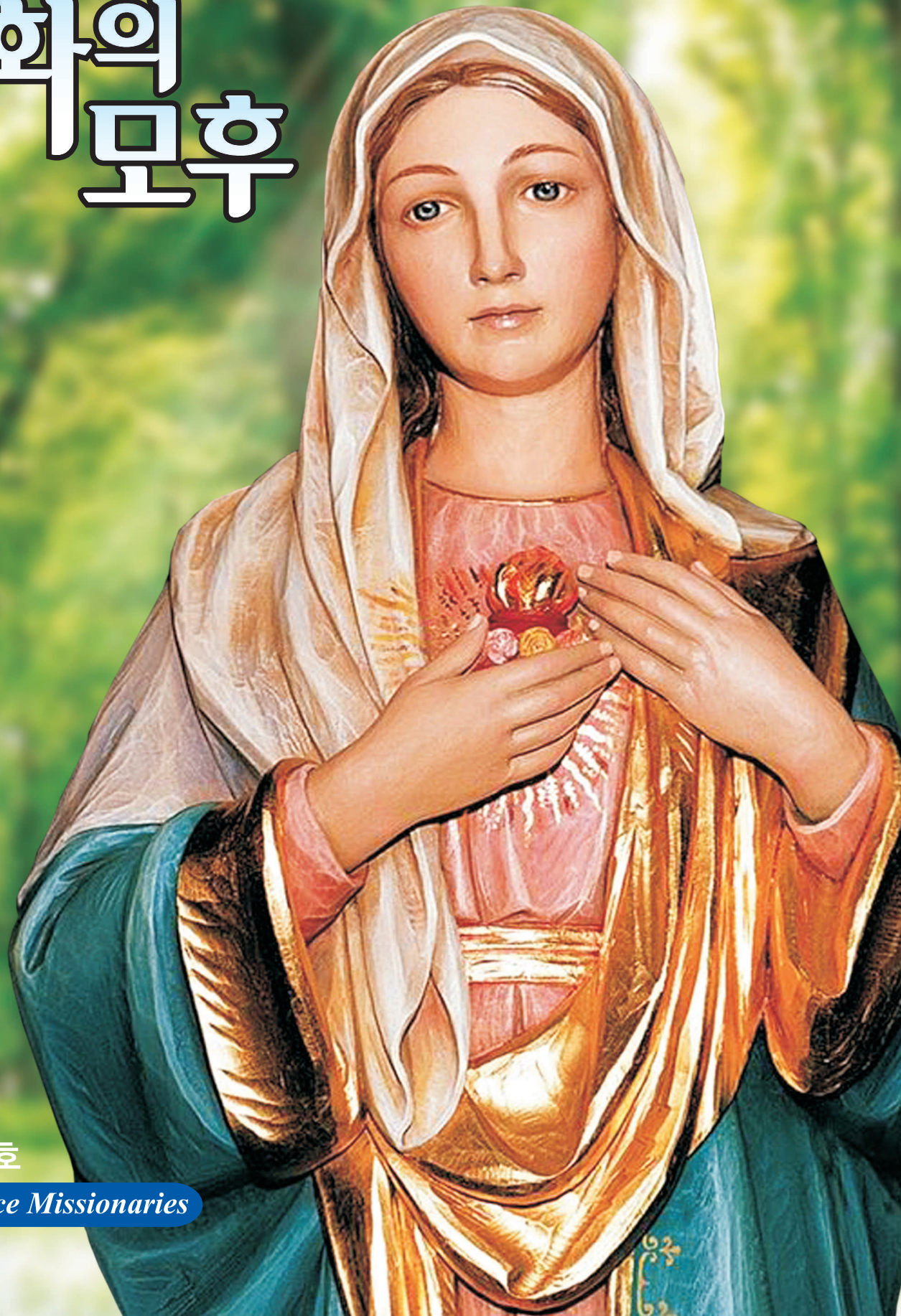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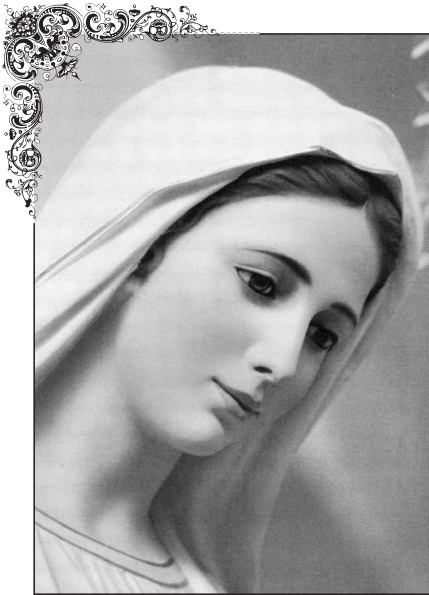
MEDUGORJE

평화의 모후



2016 제73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현존은 너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며 회개를 위한 격려이란다.
사탄은 강력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안에 무질서와 불안을 심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아, 성령께서 너희를 기쁨과 평화가
있는 참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위하여 내아드님께 전구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6년 5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3 성모님과함께드리는기도-1

4 성체 성혈 대축일 - 빵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2016년 5월 26일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

6 회개로 초대하시는 성모님
리비오 판자가 신부 / 메주고리에 라디오 마리아 지도신부

11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

12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자신을 비워라
산귀스 바오로추기경의 마지막 조언

14 이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나의 잔이다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다 -2-
스캇 한스 가톨릭 대학교 교수

20 개신교 소년이 바친 성모송의 힘과 열매
턱웰 신부

22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주고리에 미사 강론

24 두려움을 물리치는 묵주기도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

28 우리의 노래
정찬례 데레사

29 성모님께 바친 나의 삶
성가 가수 매릴라

32 파티마 성모님! 하례하나다
이정숙 마리아(수원교구 범계본당)

35 재정 보고 및 씬터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님을 위하여...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의 영혼을 위하여...
 - 돌아가신 부모님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 젊은이들의 보다 많은 성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큰딸이 건강한 아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성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성모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 주님께서 손녀 딸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주님 두 자녀들의 성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수산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사랑이신 주님 첫 아이를 임신 중인 딸과 태아를 보호해 주소서.
 - 성모님, 아들 가족이 하느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해주소서.
 - ○○○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군에 입대하는 손자와 손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남편과 딸의 건강과 영적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 아버지가 영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아무도 기도해 주는 이 없는 불쌍한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 성모님의 도구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 암치료 중인 ○○○이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믿음이 없는 남편과 사위와 냉담중인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가족들을 메주고리에로 불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11년째 Homeless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소서.
 - ○○○부부가 아기를 갖을 수 있도록 성모님의 기도를 청합니다.
 -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Christian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아들의 사명과 신앙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소서
 - 주님, ○○○ 사업체와 ○○○들을 봉헌하오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성모님의 훌륭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소서.
 - 아프리카 선교사명중에 주님의 곁에 간 딸 데레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모든 사제들이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안에서 거룩한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소서.
 - 제니파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정의 은총안에 머물게 하소서
 - 하느님을 믿지않는 남편과 위기에 있는 저의 결혼생활을 위해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과 봉사자, 후원회원들을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오니 인도해주소서.
 - 결혼을 앞둔 딸○○○과 사위에게 가톨릭 교회 성사의 은총을 믿고 성 가정의 축복을 받도록 허락해 주소서.
-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매일 및 매월 첫 토요일 성모성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 빵의 나눔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고린도 전서 11, 24-25)

2016년 5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 전문

바로 사도가 코린도 공동체에 보내는 서간의 성체성사 제정과 관련된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언입니다. '이를 행하여라'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나누어주며,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함께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당신 부활의 기억을 세워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눔의 행동'을 실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성체성사가 봉헌될 때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우리의 미약한 손으로 봉헌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함으로 분명해진 것을 제자들에게 청하셨습니다. 방금 복음말씀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루카 9,13). 사실 예수님께서 빵을 축복하시고 쪼개어 주셨으며 모든 이들이 만족한 결과가 생겼지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군중에게 직접 나누어 준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

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군중들을 돌려보내는 대신 작지만 가진 것을 나누셨습니다.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성스럽고 존경받으시는 주님의 손으로 쪼개진 빵의 조각들은 미약한 제자들의 손으로 전달되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어느 하루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려는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치시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징(요한 6,48-58)임이 확실합니다. 늘 이 두 가지 작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미약한 빵과 물고기를 봉헌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나누어주신 빵을 모두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 나눔이라는 단어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뜻을 설명해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누는 행위를 우리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타인들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빵의 나눔'이라는 표징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엠마우스를 기억해 봅시다. '빵을 떼실 때'(루카 24,35) 그분을 알아봅니다.

예루살렘의 첫 공동체를 기억해 봅시다. '가르침을 받고... 빵을 떼어 나누었다' (사도 2,42) 시작부터 초기 교회의

중심이고 삶을 이루고 있는 성체성사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인 성녀들은 스스로를 나눔으로서 '가난한 형제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매일의 빵을 식탁에서 잘라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모든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습니까. 특히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성체성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에도 빵을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라고 하신 부활하신 주님 사랑의 힘에서입니다. 우리가 곧 하게 될 성체행렬 역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의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행위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사랑의 상징으로서 이 도시와 모든 세상에 '나누

는' 행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2016년 5월 26일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가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봉헌되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나눔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언급하였다. 미사 후에는 성모 대성전으로 향하는 성체행렬이 시작되었으며 도착한 후 성체강복이 이루어졌다. 라테라노 대성전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들과 함께 봉헌한 미사에서 교황은 빵의 나눔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상징임을 확인하고 빵을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전통임을 확인하였다. 성모 대성전까지 이어진 행렬 후에 교황은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에게 성체 강복을 하였다. M

<http://kr.radiovaticana.va/news/2016/05/26dptj>

2016년 6월 2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어떻게 나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고 얼마나 나를 찾는지를, 나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너희들의 어머니로서, 너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단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 오는 이일들은 하느님께서 너희를 무척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너희를 영원한 삶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내가 너의에게 오는 것이다. 나의 사도들아, 순수한 마음을 갖고자 하며 그 마음안에 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너희들은 좋은 길을 가고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아드님을 찾는 것은 옳은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랑의 징표들을 남기셨다. 그분께서는 희망을 남기셨다. 너희가 희생과 보속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너희의 이웃에 대하여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있다면 그 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단다. 나의 많은 자녀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거나 듣지도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두를 부르시는, 나의 말과 노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분의 성령께서는 천상과 땅의 일치 안에서 그리고 서로의 사랑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빛으로 나의 모든 자녀들을 비추어 주신다. 그럼으로 나의 사도들아, 너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또한 사랑으로 일하여라. 배신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럼으로 써 너희는 그들안에 있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된다. 고맙다.

발현 목격증인 미리아나



회개로 초대하시는 성모님



리비오 판자가 신부 / 메주고리에 라디오 마리아 지도신부 / 번역: 남기옥 마르타

2016년 4월 25일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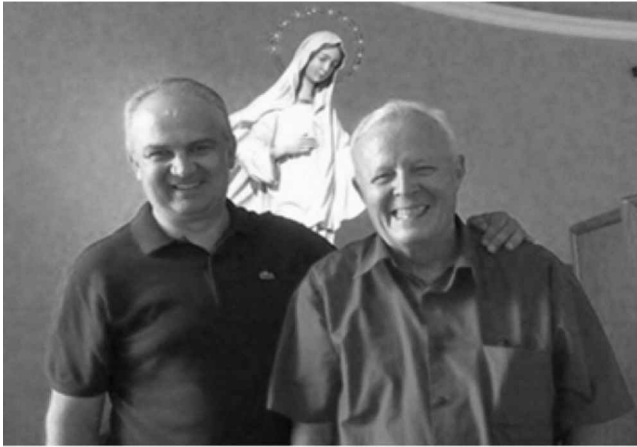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저지르는 죄와 그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너희를 바라보는 내 티 없는 성심은 피를 흘린다. 나는 너희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와, 이 지상의 삶이 너희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이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위한 희망과 기쁨이 되도록, 나를 통하여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나의 부름이 너희의 영혼과 마음에 위로가 되어, 창조주이시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라. 어린 아이들아, 인생은 짧단다. 이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늘은 이를 더욱 잘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에서 피를 흘릴 정도라고 하십니다. 발현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신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내 성심이 칼로 찌르는 듯 아프다." 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모님의 마음에서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일까요? 발현증

인에 의하면 이런 거두절미하시고 이런 드라마틱한 말씀부터 시작하셨답니다. "너희들이 저지르는 죄와 그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너희를 바라보는 내 티 없는 성심은 피를 흘린다."

원죄 없는 성심이란 어떤 죄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원죄도 개인의 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은총이 충만하신 성심입니다. 그런 성모님의 성심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몇 메시지에서는 "불신으로 인해 당신 성심이 칼로 찌르는 듯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같은 말씀은 그 동안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눈물이 흐른다고도 하셨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입니다. 친구 여러분, '마음이 피를 흘린다.' 라는 표현은 마리아 파블로비치도 언급하는 것처럼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 심니다. 왜 피가 흐르는 것입니까?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볼 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에서는 우리의 회개로 인해 생활이 바뀐 모습을 보면서 당신 마음이 기쁘다고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가 흐른다니요? 이유는 죄

"너희들이 저지르는 죄와 그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너희를 바라보는 내 티 없는 성심은 피를 흘린다."



가 확산되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고 하느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며 죄의 확산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수령에 깊이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악습의 노예로 전락했고, 칠죄종인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의미를 잃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느님 앞에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뜻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폐쇄성과 무감각성으로 우리 일상생활 곧 희망, 계획, 우리들의 정서와 감정,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에서 하느님을 쫓아내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삶에서 죄를 유발시키는 이런 칠죄종을 잘 묵상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죄의 악습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밝혀 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무관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귀를 닫고 있는 생활, 이런 마음의 폐쇄성은 우리를 점차 죄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것들이 죄의 원인이 됩니다.

성서에는 죄로 이끄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눈, 거짓말을 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가는 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증인, 형제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자' 등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오

로 성인은 많은 죄들을 탄생시키는 근본적인 죄들에 관해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이미 죄 리스트에서 지워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불륜과 그 외의 현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들, 그러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무수한 죄들입니다. 칠죄종의 각각의 죄는 세상에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었고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기로 결심하고 고해소에 막상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있어도 도대체 무슨 죄를 고해해야 할지 막연해 하는 신자들을 봅니다. 제대로 된 양심성찰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친구 여러분,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칠죄종 하나하나를 잘 성찰하도록 합시다. 또 십계명 각각을 바탕으로 양심성찰을 하고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바탕으로 양심성찰을 해봅시다. 또 많은 본당의 고해소 앞에는 고해성사를 보기 전 양심성찰을 잘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오로 성인이 죄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 7장에서 이미 이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데 있어서 우리는 거의 완전히 실명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너희들이 저지르는 죄와 그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너희를 바라보는 내 티 없는 성심은 피를 흘린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이를 바른 양심으로 꿰뚫어 보고 과연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집시다. 이것은 겸손의 행위로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각각의 양심을 통해서 비상벨을 울리게 됩니다. 인생 안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 '너희를 초대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위협에 처할 길로 곤두박질치고 있을 때 엄마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당장 '애들아, 거기 멈춰! 멈추라고! 안 돼!' 라며 긴박하게 소리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너희를 초대한다." 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방법인 초대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비극을 눈앞에 둔 초대입니다. '애들아, 조심해, 차가 달려오고 있잖아!' 라는 자식을 챙기는 엄마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이 구절은 먼저 전체적인 관찰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죄를 직시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습관들을 직시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악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죄와 죄를 짓게 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이에 대한 처방약을 제공하십니다.

즉, 거두절미하게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기도로 돌아오너라." 입니다! 어떻게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을 때 되짚어 나갑니다.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즉, 회개, 통회의 길, 새로운 길.... 아프죠? 예, 아픕니다. 이런 길을 찾아 가려는 결심이 참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회개를 위해 결심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죄를 짓게 만드는 습관들을 잘라버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기심, 욕욕,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서 으스스대었던 교만을 잘라내려는 결심,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재발견하기, 작고 여리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기, 다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려는 결심입니

다. 통회의 눈물, 지난 사순시기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성찰하면서 매 맞는 자국들, 그분의 못 박힌 상처들, 가시관을 쓰신 모습, 모든 그분의 고통 속에 잠긴 육신을 바라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1984년 사순시기 초입에 '이 본당의 죄로 인해 못 박힌 내 아들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에게 매일 상처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시다. 이런 바라봄으로부터 마음이 통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처절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오를 저질렀습니다.'라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죄에서 눈을 뜬 다윗이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며 통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 여러분, 이런 통회의 행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비가 올 수 없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포용한 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 없이 용서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같은 죄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하신 것처럼 습관적인 죄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기도



로 돌아오너라."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미 이 지상에서 부터의 행복입니다. 물론 어려운 길을 제시하시지만 행복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런 행복이 실현될 때는 매번 바른 결심을 할 때 마다입니다. 바른 길로 들어설 때 마다입니다. 매번 용서를 청하는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질 때입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을 때입니다. 평화는 행복의 새싹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느님과 일치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이제 구구한 말들은 제쳐두고 어서 행동할 때입니다. 즉, 하느님과 기도로 돌아갈 때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시다. 은총과 빛의 원천인 하느님께 갑시다.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하시어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라고 하십니다. 가장 큰 현시는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비의 길입니다. 성모님은 35년간 회개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하시어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셔서다.' 라고 하십니다. 초대받은 우리가 기쁨과 사랑, 평화와 희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중에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에 기쁨과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를 초대하시는 것' 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 돌아가서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희망, 빛과 말씀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은 어둠과 암흑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게 길을 헤매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 는 사람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신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달라고 청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지옥을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들, 이런 이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나의 부름이 너희의 영혼과 마음에 위로가 되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서 힘들어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죄의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침울해질 필요는 없다. 내가 단호하게 명령조의 권고를 했다고 해서 기분나빠할 필요는 없다.' 등등으로 해설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혹은 '다시 한 번 기도와 회개로 돌아오라고 반복해 말했다고 해서 시무룩해질 필요도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잘 토라지는 사람에게 이런 저런 게 좋은 언행이 아닌지 고쳐야 한다고 충고 했을 때 금세 토라져서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를 회개로 초대한다고 하십니다. 말만 많이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혹은 행동은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바뀔 여지가 없는 생활을 그만하고 내 초대가 너희를 위한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에게 일어날 위험을 보고 미리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라는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 초대가 너희 마음과 영혼을 위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다고 하십니다. 악에 의해 겹겹이 구겨진 마

어떻게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을 때 되짚어 나가면 됩니다.

음, 죄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을 위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기도와 하느님께로 돌아오라는 성모님의 초대는 이런 질병적 상황에서의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면 처방을 받고 이런 저런 약을 먹으면 치료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기도로 돌아오라는 성모님의 초대는 우리를 위



한 위안 즉, 치료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초대를 받아드리면 영원한 삶으로 인도 하시며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우리는 회개하면서 창조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 메시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면서 이미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동시에 영원한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지복지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초대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는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키십니다.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경고 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삶은 순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쌓아 두면 녹슬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곳은 선행만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의 행위만이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명이 연장되어 인생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생은 순간의 소풍이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은 아무도 모르며, 인생은 한번 살며 영혼은 하나일지니...."라는 기도를 제가 어릴 때 할

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아침기도에 나오는 구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주어졌고 그 속에 아주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미 영원으로부터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 그 시간에 사람에게 '예',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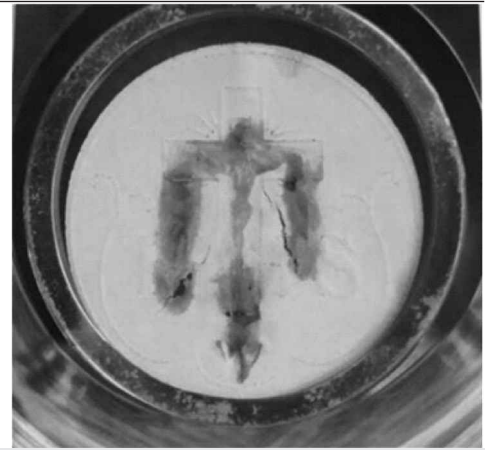
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사도들인 우리가 이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서 성 모님과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 협력하시는 성모님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웃의 회개를 돕는 것이며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있게 되면 이웃들이나 하느님을 떠난 이들도 점차 하느님 곁으로 말없이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소소한 임무를 충실히 성모님 안에서 실행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게 되고 이것은 성모님께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아, 인생은 짧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소풍, 아주 짧은 소풍입니다. 이런 시간에 쓸데없는 수다나 떨고 험담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맙시다. 기도와 선행을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합시다. 선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행과 자비의 행위 이외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달 성모님 메시지를 잘 읽어보고 묵상하도록 합시다. **M**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

176. (79. 6.14. 가라반달 (스페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대축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천상 엄마가 너희를 이끌어 가는 길을 신뢰하며 계속 따라오너라. 엄마의 권고에 응답한 너희를 통해, 내 계획 이 바야흐로 실현되려고 한다. 내 활동을 도와 다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 성심'께서 원하시는 사제들이 되도록, 너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니 말이다. 내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즉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및 개인과 국가의 삶을 다스리실 터이니, 이러한 그분의 승리가 없고서는 티없는 내 성심의 승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천국에 계시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지상의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바로 그분이신 성체'의 개선으로 빛날 것이다. '성체'께서 다시 교회 생활 전체의 심장이요 중심이 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흡수, 감사, 찬미, 속 죄를 위해 바칠 너희 모든 기도의 정점(頂點)이 되시리라.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다시 모든 전례 행위의 중심이 되시리라.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 구현(具現)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을 통해, 전례가 천주 성삼께 드리는 찬가로서 거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다시 교회 집회의 중심이 되시리라. 교회는 무엇보다 그분의 신적 현존이 너희 가운데 빛나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암흑이 '감실'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너무도 큰 공허, 무관심, 푸대접이 감실 주위를 에워싸고 있고, 나날이 의심과 부인과 모독이 늘어가니 말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 성심'께서 너희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삼으신 곳에서, 그러니 바로 당

신 자신의 집에서, 당신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또다시 상처받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열렬한 봉사자들이 되어라. 그분은 너희를 통해 다시 태어나시어, 성부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며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내주시는 분이니 말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들이 성체를 흡수하고 받아 모시며 더욱 깊이 사랑하도록 인도하여라. 모든 사람이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 '예수성체'께 다가가도록 도와 주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는 신자들에게 죄의식을 길러 주고, 그들이 은총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러 나가도록 권고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쳐야 한다. 대죄중에 있는 사람은 '성체'를 받아 모시기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성체께 대한 독성(瀆聖)죄의 물결을 막을 방벽(防壁)을 쌓아올려라. 지금만큼 합당치 못하게 영성체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모(冒)영성체'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내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발 그만해라!" 보다 못해 너희 천상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가 온 것이다! 내가 몸소 '성체 안에 계시는 내 아들 예수님' 주위의 텅 빈 공간을 채워 드리고, 그분의 신적 현존을 에워싸는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 작정이거니와, 이 일을 내 소중한 아들들인 너희를 통해 하려는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지상의 모든 감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랑의 호위대(護衛隊)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고펀 신부님께서 1973 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자신을 비워라

산귀스 노추기경(바오로)의 마지막 조언



(지난 2012년 8월 22일, 타이완의 산귀스 추기경(바오로)이 선종했다. 그는 죽기 몇 주 전, 자신의 질병이 어떻게 하느님의 선물이었는지를 편지로 알렸다. 중국어로 된 원문은 8월 19일 자 타이베이대교구 주보에 실렸다. 다음은 산 추기경이 쓴 편지 전문이다.)

"예수회에 거의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영적훈련, 인격적 언행, 책임, 명예, 지식의 탐구, 일에 대한 진지함과 효율의 중요성은" ad majorem Dei gloriam(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냐시오의 원칙에 따르면,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이자 징검다리였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성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목표를 잊고, 평판과 권위를 높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데 집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도구들이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매일기도와 영신수련, 미사를 통해 나는 하느님의 친밀함을 느낀다. 하지만 창으로 가슴을 찢리고 "자신을 비우시고(필리피서 2,7)" 한 조각의 천으로도 몸을 가리지 못하고 십

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꼈다. 이것에 대해 여러번 묵상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오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나는 병원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을 가졌다. 내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종종 나타났다. 그분은 "자신을 비워라, 그러면 하느님과과의 일치를 위해 자신을 비운 나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골고타 언덕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환영은 나를 깨우쳤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직자의 장백의, 주교 반지와 주교관, 추기경의 진홍색 수단, 이런 것들은 과다로 포장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들은 나의 원래 모습과 자신을 잃게 했다. 하지만 어느새 이런 옷들은 내 일상의 하나가 됐고, 이런 옷들을 벗어던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할 수 있으시다. 하느님은 나에게 몇 가지 속임수를 쓰면서 몇몇 경우 나를 당황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문제점을 풀어주셨다.

지난 6월 말, 나는 가슴에 찬 물을 빼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내 허파에 고인 물을 빼기 위해 이노제를 처방했는데,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미사를 드리는 중에 이노제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오 18,3)

약효때문에 독서를 할 때쯤에, 할 수 없이 화장실에 가야 했다. 그러나 내가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줌을 지려 옷이 심하게 젖었고 마루에도 오줌을 흘려야 했다. 사제품을 받고 57년 동안 미사를 봉헌해 왔지만 이런 실수는 한번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 권위를 잃었다. 수녀와 의사, 간호사들 앞에서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몹시 부끄러웠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나의 허영심을 고치기 위해 어떤 일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얼마 뒤, 타이베이에서 나는 이틀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고 의사는 완화제를 처방했다. 약효는 한밤중에 나타났다. 나를 돌보던 남자 간호사를 깨워 샤워실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샤워장에 도착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대변이 나와 바닥에 떨어졌고, 간호사가 내 똥을 밟았다. 간호사는 뒷처리를 하면서 매우 불편해 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바닥을 닦으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혼자 중얼거렸다.

간호사는 똥 묻은 내 파자마를 벗기고 나를 화장실 변기에 앉혔다. 그리고 내 다리에 묻은 똥들을 닦으며, 마치 어린이 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나를 꾸짖었다. "두세 발짝만 더 가면 변기였는데, 왜 그것도 참지 못했느냐? 이것을 치우느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일찍 말해 달라" 등을 당부했다. 나는 내가 한 살짜리 어린이처럼 작게 느껴졌다. 간호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나에게 다가와 내가 90년 동안 갖고 있던 모든 존경과 명예, 직함, 직위, 권위, 위엄들을 난도질했다. 간호사는 내 몸을 다 씻기고 나서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바로 잠이 들었다. 나도 잠에 들었으나 곧 깨어났고 마음은 아주 편하게 느껴졌다. 그때 "자신을 비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분은 나를 향해 웃고 있었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자고 나를 초대했다. 내 몸이 아주 작은 캔거루처럼 매우 가볍게 느껴졌다. 한 번 뛰어 오르니 성스러운 산의 십자가 아래까지 올라 있었다. 다시 뛰어 올랐을 때 나는 예수님의 발아래까지 닿았다. 위를 쳐다보니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분은 자신의 상처를 열어 보이며 나보고 뛰어올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작은 캔

거루 처럼 다시 한 번 뛰어올라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여기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인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 라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는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잊은 것처럼 나에게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 나는 주님께 내 영성적 질병을 낫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이로 인해 나는 어린 아이처럼 생기를 되찾고 단순해지며 겸손해졌기 때문이다. 이 순간은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오 18,3)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당황했던 순간은 2주 전이었다. 내가 예수회의 병원으로 옮겼을 때였다. 발에 부종이 생겨 의사들은 강력한 이뇨제를 처방했는데 또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방사선 치료를 하러 가던 도중에 약효가 나타나서 의료진과 기술진들이 내 바지가 오줌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한 조각의 위엄조차도 잃어 버렸다.

나는 이 경험들을 통해 두 가지의 영성적 측면을 깨달았다. 첫째는 만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바란다면, 자신을 비우는 데 있어 예수님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장난을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고질병을 치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성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치워질 것이다. 이런 당황스러운 목상이 죽을병에 걸려 고생하는 90대인 나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 며칠 만에, 예상치 못했던 이 당황스러움들은 나에게 어릴 적의 순수함을 가져다 주었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좋지 못한 습관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됐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오 19,26) **M**

2012년 7월 31일,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축일에
(<http://sbkm.kr>에서)

스캇 한 교수의 개종 - 2



이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나의 잔이다

개신교 신학교 교수이며 열렬한 장로교 목사였던 스캇 한교수는 가톨릭의 진리가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 천주교 신학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후부터 가톨릭 교회의기도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국제적인 천주교회 옹호론자가 된 그의 신앙 여정에 대한 체험담을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의 교회에서 목사가 됨



어느 날, 버지니아 지역에서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캇 한, 당신을 우리 교회의 목사로 초대하고 싶은데 이곳에 와 보시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그 교회의 장로들과 인터뷰를 하고 시험 설교와 성경 공부를 지도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을 승낙하고 그 교회의 장로들과 인터뷰를 한 후에 설교를 하고 성경공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스캇 한,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교회를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은 성경과 신학 공부 및 설교와 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일요일 아침 예배에 최소한 45분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료는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 만약 가톨릭교회에서 사제가 일요일에 45분간 강론을 하면 신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성당 전체가 텅텅 비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에게 적어도 45분간의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는군요." 라고 말하는 제계 교회의 임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하느님의 말씀에 꼭 잠길 수 있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목사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한 설교는 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계약(Covenant)을 법적 계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족과의 계약이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느님 가족으로서의 계약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잘 설명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성경 안에서 하신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외아들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계약에 대한 설교가 신자들의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마치 산불처럼 순식간에 교회 안에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계약은 '하느님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희생의 음식을 축하하는 전례와 계약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것' 이라고 가르치면서 가족들의 음식인 성찬식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성체' 라는 말을 했으나 그들은 그

나는 천주교회라는 독을 풀 수 있는 해독제를 말한거야



2008년 캐나다 퀘벡의 제 49회 세계 성체대회 때 상징으로 사용된 '새 계약의 궤'

러한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약의 가족으로서 매주 성찬식이 필요 할 지도 모르며, 강론 중심 대신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기념하는 예식을 해보는 것이 어떠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그 제안을 매우 좋아 했습니다. 그 때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찬식을 매 주 하자고요? 너무 익숙해지면 그 의미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우리가 매 주 그 예식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시나요?" 제가 대답했죠. "그래요? 잠깐만, 당신은 아내에게 일 년에 4번만 사랑한다고 말해주나요? 여보, 사랑하다는 말이 익숙해지면 그 의미를 무시하기 쉬운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일 년에 4번만 키스해 줄 거야" 그 비유를 듣고 그가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전례를 바꾸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험도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 더 많은 설교를 할수록 그들은 더 목말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인근의 크리스찬 고등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만난 아이들 중 매우 똑똑한 아이들도 이 계약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세사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수 많은 이름과 장소들이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해가 쉽지 않아서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족으로서의 계약을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야"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구역의 계약들에 대한 설교로 학생들을 인도했습니다.

첫째계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계약인데 그것은 혼인이며, 가족의 유대이다. 둘째 계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것으로 그것은 가족과의 계약인데 노아의 가족인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세 아내들과 맺은 계약이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했고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의 가족은 크게 불어나 부족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12 부족과 계약을 맺은 후에 하나의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족을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분의 새 계약을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 가족이 하나의 나라로 인식되는 대신 지금 우리는 국제적인 가족인 세계적인 가톨릭교회의 가족을 이루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학생 중 하나가 손을 들더니 "우리가 만일 실제로 그것을 재현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삼각형 피라미드 그림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대가족을 연상해 보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계층들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지" 그러자 누군가가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천주교회 같이 보이는군요." 당황스러워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내가 말하려는 건 문제에 대한 해답이야, 독에 대한 해독제를 말하는 거라구"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레베카가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캇 교수님, 당신 강의를 끝난 후 우리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당신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이 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먹고 있던 샌드위치가 목에 걸릴 뻔 했습니다. "왜들 이러지? 제발 조용히들 해줘, 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레베카, 천주교가 아니라 천주교라는 독을 풀 수 있는 해독제를 말한 거야" 그러나 레베카는 이런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나 우리들은 만장일치로 당신이 곧 천주교인이 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오후에 집

나는 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개종시킨 사람이야!

에 가서 부엌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김벌리에게 말 했습니다. "오늘 레베카가 내게 뭐라 말했는지 당신은 짐작도 못할 거야." 김벌리는 "또 다른 레베카예요? 무슨 말인지 해봐요." "오늘 점심시간에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학생들이 교실에서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내가 천주교인이 될 거라고 했다는 거야, 세상에 맏소사! 당신은 내가 천주교인이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 그러자 김벌리는 굳은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지 않아요, 당신?" 그 말은 마치 내 등에 칼을 꽂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벌리!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켈빈주의자야. 켈빈주의자중의 켈빈주의인 장로교 신자라구, 나는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에트너 책을 수십 권이나 나눠주고 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개종시킨 사람이야! 마틴 루터의 사상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구!"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당신이 루터교회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김벌리의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내 서재로 가서 문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김벌리의 말은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정반대라서 털썩 겁이 났습니다. 아마도 공부만 많이 하고 기도를 너무 적게 한 탓이라는 생각에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반대하는 이들이 쓴 책들을 더 많이 읽었지만 웬지 그 책의 내용들은 더 이상 나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더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회 신학교 교수가 되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또 다른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요한복음 세미나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요한복음에 관한 계약, 하느님 가족에 대한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며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것이 천주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야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하셨는데 주위를 둘러보시며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장에서 예수님께서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께서 그분께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곧 이어서 니코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제자들에게 세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계약을 맺는 것이며, 바로성사이고, 세례를 포함하는 계약갱신이라고 신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모두 그 뜻을 알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참으로 풍요로운 말씀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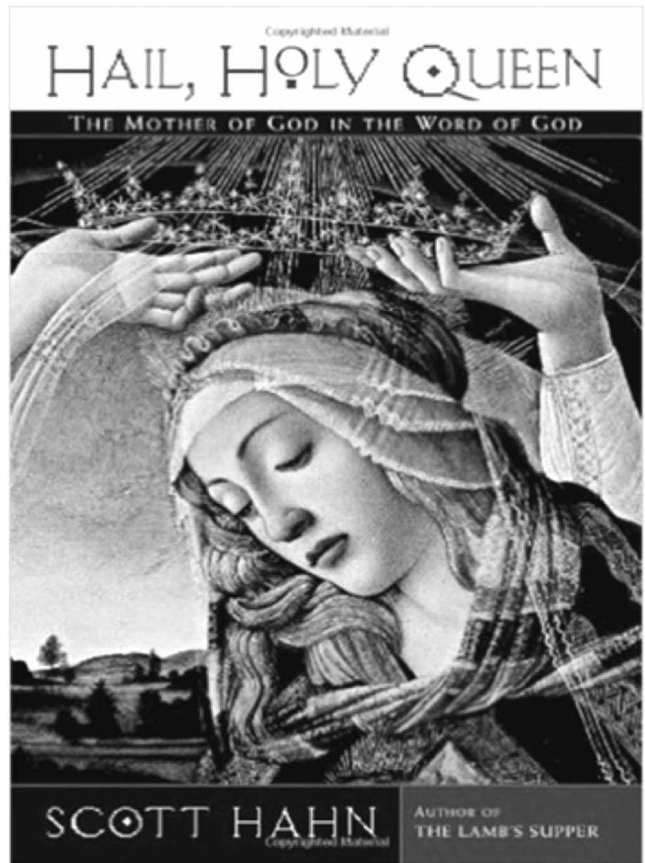
제가 어떻게 개신교 신자들에게 천주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 복음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다른 각도로 그 대목들을 살펴 보았고 또한 요한복음서에 대한 해설서를 모두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은 상징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육체와 피는 그분의 피와 몸에 대한 상징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런 해석은 아무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수만 명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대부분이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잠깐, 나는 단지 비유로 설명했을 뿐이다." 라고 하실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열 두 사도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 버렸구나. 내가 오직 비유와 상징으로 말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듣겠느냐?" 하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에 나는 너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쳤다.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요? 혹시 당신께서 우리에게 추천해 주실 랍비가 있으십니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한다면 당신께서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할 은총을 주실 것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장로교회 신자들도 깨닫게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개신교 신자들에게 천주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만찬과 성찬식에 중점을 두고 알아 본 결과, 예수님께서 "계약"이라는 말을 공생활 중에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유보하셨다가 "이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나의 잔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계약이 가족을 의미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만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을 하신다는 것은 새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당신의 새 살과 새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초대 교회에



내 삶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서 왜 7백 여 년이 넘도록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논쟁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들였고 성체안의 예수님의 현존을 믿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세미나에서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에피소드가 발생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존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었던 트렌트 공의회에 대한 세미나 발표를 막 끝낸 후였습니다. 존은 한 시간 반이나 트렌트 공의회에 관한 것을 하고 싶은 대로 조명했습니다. 존은 그들의 논쟁 중에 많은 것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죠. 학생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할 때 존이 내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당신은 루터가 두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믿음만으로' 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두 번째로 '성경 만으로'도 내세웠지요. 그런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전에 저는 교수님이 가장 곤란해 하는 질문을 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질문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야."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해주시죠." "좋아, 같이 노력해보지. 존, 디모데오 후서 3장 16 절이 열쇠예요.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이므로, 가르치고, 꾸짖고, 올바르게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해요.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존이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스캇 교수님, 그것은 성경이 옳은 것에 대한 영감이 있고 유익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영감을 받았거나, 성경만이 그런 것

들에 유익하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과 같은 다른 것들도 필요해요. 데살로니카 후서 2장 15절은 어때요?" "그게 뭐지?" "바오로는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이나 글로 써 보낸 전통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어요." 전 그 때 존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래, 존,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을 향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전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 왜, 나는 존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는지를... 다음 날, 저는 미국 내의 신학자들과 교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믿음만으로도 성경만으로'가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어느 신학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스캇 교수님,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존이 제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당신이 저에게 어리석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혼란 중에 있을 때, 제가 매우 존경하는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자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스캇 교수님, 성경 안에서 '성경만으로' 라는 단어를 찾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때 추정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크게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참 이상한 일이군요. 우리는 신자들에게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니요? 그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 온 것이 성경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은 마치 그동안 속해 있던 가지를 잘라 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캇 교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신학교수가 말했습니다. "스캇 교수님, 당신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 인가요?" "글쎄요. 아서 교수님, 나는 천주교로 가는 걸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진리의 기초와 기둥이 무엇인가요?" 신학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스캇 교수님, 우리 모두에겐 성경이 진리의 기초이고 기둥이지요." "아서 교수님, 그런데 왜, 디모데오 전서 3장 15절에서 진리의 기초와 기둥은 교회라고, 믿는 사람의 집이라고 말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분이 말했습니다. "스캇 교수님, 당신은 그 문제로 나를 함정에 빠트리고 혼란을 주는군요." 그분에게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아서 교수님, 지금 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함정에 빠진 것 같이 느껴져요." "스캇 교수,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요? 교회는 많잖아요?" 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진리의 기초와 기둥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제 말은 우리가 진리의 기초와 기둥이 된다고 하는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와 당신을 돌아보세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되나요?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직 하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고 가르치고 설립된 지 2천년정도 됐고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디모데오 전서 3장 15절과 기분 나쁘도록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치는 세미나의 이사장인 스티브에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시다. 이사장이 식사 초대를 하는 것은 제가 천주교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가면서도 그가 어떤 말을 할지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매우 성황이고 학생들의 등록이 크게 늘어 났다고 하며 이사회에서 저에게 신학교 학장을 맡기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뜻밖의 소식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6살밖에 안된 절보고 신학교 학장을 맡아달라니... 이사장은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과목을 잘 가르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사도 고용하십시오. 스캇 교수님, 당신이 원한다면 신학박

사 공부를 하시고 비용도 저희가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근처에 신학 박사 학위를 할 대학이 있나요?" 이사장은 "네, 카톨릭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니야, 나는 가톨릭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내심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달렸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제시하는 신학교 학장직에 대하여 기도해보시겠어요?"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이사장님, 아마도 저는 못하겠다는 대답을 드릴 것 같군요.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 김벌리가 물었습니다. "학교 이사장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나보고 신학교 학장이 돼 달라더군요.." 김벌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캇,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고 대답 했다고요?" "싫다고 그랬어." 김벌리가 놀란 음성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스캇! 잠깐 잠깐만...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싫다니요? 왜, 학장직이 싫다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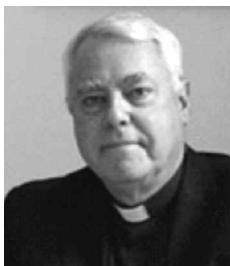
"김벌리, 나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학생들에게 무얼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언젠가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단순히... '예수님, 저는 스승들에게 배운 대로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참되다고 보여주었고 저는 그들이 보여준 것을 신뢰해야만 했어요.'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 밖에는 모르겠어..." 김벌리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꼭 포옹해 주었습니다. "스캇, 그런 점이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나는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그렇지만, 우린 기도해야 하겠지요" 그녀는 나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사장의 제안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였고, 매우 행복했던 그 교회의 목사직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M**

(다음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개신교 소년이 바친 성모송의 힘과 그 열매

턱웰 (Tuckwell) 신부



여섯 살인 개신교 소년은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함께 노는 친구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소년은 그 친구가 종종 성모송을 암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년은 친구가 하는 그 기도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어 자신도 매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어머니에게 종이에 적힌 성모송 기도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 아름다운 기도문 좀 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매우 야단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 가지고 다니거나 외우면 안돼! 이것은 마리아를 여신으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톨릭의 미신적인 기도문이야.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보통 여자일 뿐이다. 그러니 가서 성경이나 읽으면,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모두 담겨있어!"

그날부터 소년은 성모송을 바치는 대신 더 많은 시간을 매

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카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던 소년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잉태를 알리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기쁨의 환호를 외치며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성경에도 성모송이 있어요!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엄마는 왜 성모송을 미신적인 기도문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날 소년이 루카 복음서에서 발견한 것은 엘리사벳이 동정마리아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인사말과 마리아의 마니피캣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모송에 관해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매일 성모송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예수님의 어머니께 것처럼 아름다운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열네 살이 된 어느 날, 소년은 식구들이 마리아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마리아는 여느 다른

아름다운 기도인 성모송과 묵주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바치십시오.

여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지와 오해만 가득한 식구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소년의 마음은 의분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모마리아에 대해 말하고 변호했습니다. "마리아는 죄로 얼룩진 아담의 여느 후손들과는 전혀 달라요! 천사는 마리아를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다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세요! 하느님의 피조물 중에서 마리아처럼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세대가 마리아를 가장 복되다고 선포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그런 분을 너무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정신이 아니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정신도 아닌 것이 분명해요. "아들의 말을 모두 듣고 난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충격에서 깨어난 뒤 어머니는 깊은 시름과 슬픔에 사로잡혀 울부짖었습니다. "오! 저의 하나님, 부디 제 아들을 붙잡아주옵소서. 제 아들이 교황의 종교이며 이단인 가톨릭교에 빠질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나 소년은 성서공부를 하면서 더 깊은 고심을 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두 종교를 진지하게 두고 어느 것이 진리의 계승자인지 공부하며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답을 찾았습니다. 진리의 교회는 오직 가톨릭 교회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부터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소년은 예수님의 가장 열렬한 제자이며 전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어느 날, 결혼한 누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누나 역시도 동생의 개종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그날도 매우 격분해서는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난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 아이들을 사랑해. 하지만 만일 그들 중에 누구든지 가톨릭신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난 그 아이들이 이단인 가톨릭 교황의 종교를 택하도록 허락하느니 차라리 칼로 그 아이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말거야. "누나의 분노와 반대는 마치 회개하여 개종하기 전의 바오로 사도 처럼 격렬하고 극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년의 누나도 자신의 길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아들 중 한 명이 치유가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동생인 그 소년은 실의에 빠진 누나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 당연히 요한이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나하고 같이 성모송을 한번만 해봐. 그리고 요한이 낫게 되면 가톨릭이 참된 종교라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누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톨릭을 택하게 될 거야. "누나는 처음에는 다소 주저했지만 아들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동생의 제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치유를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동생과 함께 "성모송"을 암송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다음 날이었습니다. 누나의 아들은 거짓말 처럼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누나는 나와와 약속을 지켜 가톨릭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준비를 거쳐 누나와 모든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누나는 늘 동생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톨릭 교인이 되어 자신의 누나를 가톨릭으로 개종시켰던 그 소년은 그 후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을 섬기는 데 바쳤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나 텍웰(Tuckwell)신부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두 성모님의 도움과 사랑의 힘입니다. 성모님께,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아름다운 기도인 성모송과 묵주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바치십시오. 결코 거르지 마십시오. 아울러 지옥의 문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반석인 사도 베드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진리의 가톨릭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개신교인들의 마음에 빛을 밝혀달라고 성모님께 간청하십시오." **M**

(<http://m.blog.naver.com/rkmoonsfo>에서)

메주고리에
강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14년 4월 7일 미사강론

미사시작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메주고리에 본당 야외 제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 또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특별히질병이라는 큰 십자가를 지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이 장소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주시며 우리가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주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두는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시며 언제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평화와 축복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면 삶 안에 있는 불안한 요소인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죄를 물리치면서 죄를 반성하고 용서를 청합시다.

강론

찬미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최상의 판단과 결정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

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여러곳에서 많은 말씀과 행적들을 남기시고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감춰진 그 나라를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절대 두려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아가지는 분이 절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희망이고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물질만능주의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가진 것도, 지식도 없는 작은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눈에는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단순하고 진실한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특혜나 특권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미사에 가고 영성체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겸손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모든 이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혼자 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 성서 말씀, 마음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나름대로의 힘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혼자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나약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움, 부족함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들의 아프고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에 대한 약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고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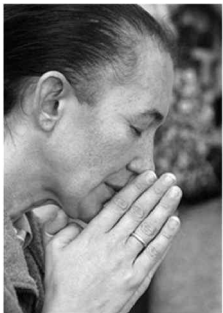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분은 분명히 풍성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픈 것,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통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류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메주고리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사생활을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 주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천상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성모님 처럼 하느님 나라를 믿고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두려움을 물리치는 묵주기도의 힘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



우리가 비츠카를 인터뷰 한 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을반갑게 맞아주었다.

질문 : 비츠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벌써 23년째 이 땅을 방문하시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순례자들은 '칭하는' 데 그칩니다. 그들은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시는 성모님의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스카 :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순수하고 성실한 사랑을 청할 때, 그분은 사랑을 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큰 은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받은 것은 그저 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와 또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쁨이 나누는 데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나 자신을 봉헌하면서(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청할 때, 마음 속 깊이 특별한 기쁨이 솟아 오름과 동시에 성모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드리거나 받을 때, 성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봉헌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꼭 필요할 때 주어집니다.

질문 : 고통받는 이들은 해결과 치유를 원합니다.

비스카 :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 등등의 십자가를 주실 때, 그것을 큰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견어갈 때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우리가 인내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성모님은 이 문제에 대해, "십자가의 선물이 너희에게 내릴 때,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너희는 언제나 '왜 하필 나한테?'라고 묻는다. 그러나 너희가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이 선물을 달게 받겠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오나 청하오니 인내와 사랑으로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주소서.' 라고 기도하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이지요.

기 시작할 때, 너희안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찾아들 것이다. 너희의 시련이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너희는 상상도 할 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범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러나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도덕적, 정신적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성모님께 배운 것이 있습니까?

비스카 : 나는 개인적으로 몹시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과 깊은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사랑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단순함과 겸손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 가능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질문 : 당신은 성모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 '거닐듯' 함께 다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통과'가 우리 영혼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는 삶을 산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스카 : 물론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이미 하늘나라를 겪는다고, 또 나중에 그것이 지속될 뿐이라고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통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미 하늘나라를 겪고 이것을 내 마음 속에서 느끼면,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조건 없이 죽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집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통과'란 우리가 하느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내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그들에게 시간과 은총을 주십니다.

질문 : 그렇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더욱 커지곤 합니다.

비스카 : 그렇지요. 그러나 불안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너희가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만족과 미움과 초조함을 느낀다면,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신과 마음과 영혼 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무기는 묵주기도와 사랑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질문 : 묵주기도도 있고 하지만 다른 기도도 많잖아요?

비스카 : 물론이지요. 그러나 성모님께는 거룩한 묵주기도를 원하십니다. 성모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그분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바치는 기도라면 다 좋습니다.

질문 : 침묵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비스카 : 침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묵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거의 조용히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성찰해 볼 수 있고, 정신을 집중하여 하느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지요. 하지만 내 소명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험담을 말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 침묵중에 기도하는데 대략 15-20분쯤 혹은 30분이 넘을 때도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잠시 일을 멈추고 고요하게 기도할 시간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잠시동안 모두가 자기 자신 속에 잠겨서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지요.

질문 :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의 순간이 끝나면, 다시 큰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 완전한 의지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마음을 열고 회심하기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소리로 떠들고 흠어져 기도 중에 받은 은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비스카 :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말씀하셨지요, "때로 사람들은 내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많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행복만을 찾는다면 그에게 하느님 어머니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질문 : 성모님의 침묵에 대해 말해주세요. 오늘 당신과 성모님의 오늘 만남은 어땠는지요? 당신은 성모님께 기도합니까? 서로 대화도 합니까?

비스카 : 성모님과의 만남은 대부분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즐겨 바칩니다. ... 우리도 같이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오래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성모님께서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질문 : 현대인들은 기쁨이 많이 필요하지만 자주 슬퍼하고 행복을 못느낍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제안하겠습니까?

비스카 :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기쁨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면 틀림없이 얻을 것입니다. 1994년, 나는 작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불길 속에서 할머니와 어린 조카와 나는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불길은 내 팔과 상반신, 얼굴, 머리를 태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외과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내가 어머니와 언니에게 아무 노래라도 불러줘! 라고 말하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네가 지금 어떤지 보렴! 나는 그들에게 말했지요. 그래도 기뻐해야 한다고, 하느님께 감사하자구요! 병원에 도착하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 한 친구는 나를 보고 정말 지독한 화상이구나, 이런 상태로 있을 수는 없겠어!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나는 쾌활하게 말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런 상태로 두시겠다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완전하게 치유해주신다면, 이 사건은 내게 할머니와 어린 조카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지. 그것은 또 내 소명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하느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한 달 후에는 작은 흉터 외에는 그 어떤 흔적도 없었어요! 나는 몹시 행복했지요. 모두가 말했어요. 거울을 봤겠지? 아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래요. ...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내 거울이 있지요. 난 알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기쁨은 반드시 찾아 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점점 더바쁘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 앞에서는 달아납니다. 가정이 물질적인 일에 중요한 자리를 내주면, 결국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그들에게서 진실된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 그들의 중심과 가정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테니까요. 애석하게도 성모님께서서는 오늘날 가정에서 예수님이 말석에 계시는 것을, 아니 전혀 아무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시는 것을 매우 슬퍼하십니다.

질문 :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우리 취향에 맞는 예수님을 원하는 때도 있지요?

비스카 : 그것은 이용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주도권 싸움이겠지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나 혼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하느님을 찾아야하지? 내가 맨 뒷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지요. 하느님을 앞서는 일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고 꾸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용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이 조만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 완전한 의지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마음을 열고 회심하기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매일같이 메주고리에 오는지 아시지요? 개인적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당신은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메주고리예에서 많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물으면 나는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메주고리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이 당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당신을 이리로 부르셨을 때에는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서 당신 스스로 찾아야합니다.

질문 : 젊은이들에 관해 말해주십시오. 당신의 체험속에는 자주 언급되는

비스카 : 그래요. 젊은이들이 아주, 아주 힘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우리의 사랑과 기도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세상이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은 곧 사라진단다. 주의하여라. 사탄이 분명히 너희의 자유로운 모든 것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원수는 특별히 젊은이들과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 원수인 사탄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활동합니까?
 비스카 : 현대의 가정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없고, 더 이상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는 가정 기도가 쇠신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패배할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시간을 가진다면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들은 자신과 쓸데없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허용합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있으시지요?

비스카 : 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성모님께 데려가겠습니다. 평화의 모후께서 당신을 평화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http://peace.new21.net>에서〉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카톡 평화

-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발행/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 지도신부 : 오세완 바오르
- 자문위원단 : 오세완 신부, Fr. John McFadden, 김한기 신부,
: 오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홍연수 선교사
- 웹관리자 : 남 미카엘라
-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문 로사리오, 정 데레사

미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성 프라자 109호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우리의 노래

정찬례 데레사

아름답고 고운 무지개
이스라엘 온 땅 가득 채우고
고요히 해 저무는데
빛나는 큰 별 하나 가만히 떠오르네
귀여운 아기 마리아 태어나셨네.

옛성조와 예언자들이
갈망했던 천상의 어머니.

당신 착한 숨결에서 쏟아지던
지혜의 생명
다함없는 은총의 기나긴 강
마른 세월을 적서
여기 우리들 강가에 와닿은 맑은 물결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늘 바다로 쉽없이 흘러가는
수많은 어린 강물들의 지친 아우성
고단한 우리 일상의 어깨 다독이는
평화로운 당신의 이름
어머니 마리아
오늘 우리가 부르는 고운 노래입니다.

아름다워라 당신의 모든 이름
하늘의 문, 바다의 별,
티없으신 어머니, 상지의 옥좌
사도들의 모후, 사랑하올 어머니
하늘의 모후, 평화의 모후여.

당신 이름으로
우리 지금 가난해도 부유하고
당신 이름으로
우리 지금 슬퍼도 평화 가득 넘치니.

어머니 마리아
오늘 우리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여!

성모님께 바친 나의 삶

메주고리예에서 드래고 마티노 빅

[메주고리예를 통해 알려진 성가 가수 매릴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매릴라가 처음으로 성모님의 발현을 체험했던 그 날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1980년대에 비자코비치 들판을 걸어서 메주고리예에 있는 성 야고버성당으로 걸어가던 순례객들은 마치 산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분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분을 느꼈어요..." 라고 노래하는 사랑스러운 여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들판을 한 번이라도 걸어 보셨다면 분명히 마티노빅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인 "Devotions"에서 대형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어로 된 노래들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매릴라의 노래들을 들려주며 오가는 순례객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영국으로 이주한 매릴라는 1980년까지는 노래를 부른 적도 가수가 되려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결혼해서 자녀를 둔 가정주부였던 매릴라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가져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어요. 성당에서 성령기도

회를 시작했는데 성가를 부르려고 했지만 반주가 없어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매릴라는 미소를 지었다. "한 3주일이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기타배우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잘 견디어 낸 것 같아요."

깊어진 믿음

그후로매릴라에게는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성모 마리아기도회 그룹에 속해 있던 그녀는 명랑한 영국엑센트로 이야기를 계속한다."음악을 하면서 저는 더 깊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당에서도 제 노래를 듣고 초대를 해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치유 은사를 받은 사제들을 모시고 하는 치유미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두개의 기도그룹에 속해 있었지요. 사람들이 제 노래에서 무언가를 얻게 된다고 말했어요.어떤 이들은 "우리는 당신 노래에서 마치 치유 사목하는 사제들이 주는 것과 같은 영적인 힘을 얻고 있어요"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메주고리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다시 메주고리로 꼭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녹음테이프를 원했었지만저는 어떤 것도 녹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시작된지 일년이 조금 지난 1982년 말경에 매릴라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이태리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산 조반니에 있는 오상의 성 비오신부님 무덤을 방문하는 순례단이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메주고리에서 막돌아온 미국 순례단을 만났다. 그 순례객들은 그곳에서 환시를 보는 청소년들의 비디오를 가지고 왔다. 스탠 카민스키와 마지, 그리고 그들 가족들은 처음으로 메주고리예를 방문했는데 성모님 발현에 대해 너무나도 흥분했으며 브라이언과 매릴라에게 캠코더를 통해 목격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탠과 마지, 카민스키는 집에 돌아가자 메주고리예에 대한 첫번째 비디오를 만들어서 메주고리예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그들이 전하는 성모님 발현에 대한 열광은 급속히 퍼져나가 매릴라와 남편 브라이언은 성모님이 발현하는 곳에 꼭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됐다.

첫번째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를 가다

"그런데 우린 메주고리예라는 곳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여행사들도 메주고리예라는 곳을 들어 본 적이없다고 했지요. 1984년이 되어서야 메주고리예 가는 일이 실현됐으나 영어권 순례객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영국에서 간 첫 순례객이었을 거예요. 슬라브코 신부님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성모님 발현실에서 고백성사를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반은 불어로 그리고 약간의 영어와 독일어로 우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사를 볼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부님께 말했지요. "신부님, 성사를 주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신부님은 "괜찮아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성사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죠. 그 마을의 모든 것이 이 조그만 발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릴라와 그녀의 남편은 이 작은 방이 그 마을 주민들에게 열

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현실에 들어간 그들은 특별한 기도방으로만 생각했었다. "이 아이들은 그룹으로 들어왔고, 얼마 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영어를 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후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미국인이 보여준 메주고리예 성모님 비디오에서 보았던 목격증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릴라는 첫 날밤부터 목격증인들이 참되며 성모님 발현은 진실임을 믿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4일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갔고 계속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일 성모님 발현이 끝난 후 성가대에 합류했으며, 아무도 그아이들을 특별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다." 지금은 발현중에 사진 찍는 일을 허락하지 않지만 당시에 브라이언과 매릴라는 수 없이 많은 사진들을 찍었다. 그들은 마리아의 둘째 사촌인 '앤튼 라이썸'이라는 의사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우리를 마리아와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는 성공한 젊은 사람으로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 분이었죠. 그분은 비스카의 할머니를 치료해주었고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인 목격증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인 마리아와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일을 늘 닥터 앤튼과 함께 의논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분은 현재 모든 삶을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프로 라이프(생명수호) 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과 매릴라는 그들의 첫 메주고리예 순례때 성모님 발현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동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야콥은 아주 어린소년이었으며 다른 아이들은 그런 일을 꾸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다시 메주고리예로 꼭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후인 1984년 4월에 다시 메주고리예를 찾아 왔다.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산에서 붉게 빛나는 큰 빛 속에서 성모님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처음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체험을 했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릴라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기전부터 성모님께 대한 굳은 신심이 있었다. 1970년대 말경에 그녀는 아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은 작은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한다. "저는 제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로 데로 성모님께 기도했는데 그분을 위해 저를 도구로 써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몰랐답니다." 매릴라는 집 근처에 있는 프란치스코회 재속회에 가입한 후, 매월 첫 토요일 신심을 열심히 지켰다. 그 성당의 사제는 성모신심이 깊어서 브라이언과 매릴라는 성모님의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게 됐다. 그러나 성모님에 대한 큰 사랑은 메주고리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매릴라는 늘 성모마리아 기도회에 참석했지만 성모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은 메주고리 예란 작은 마을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부터 구체화됐습니다."

매릴라는 첫 순례 후 자주 메주고리예를 갔다. 매년 2-3차례 다녀왔고 50번 이상 갔지만 대부분 혼자였다. "메주고리예에서 저는 성가를 녹음해야겠다는 사명감과 긴급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제 마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성모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느꼈지요. 그러나 웬지 저는 메주고리예 순례를 갈 때마다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필요한 정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은 메주고리예에서 매우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했지만 저는 한번도 좋은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매번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는 일들이 생겼으니까요. 한번은 반쯤 짓다만 집에서 민박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폭우가 쏟아져서 내가 있던 방안에 물이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경유지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결이 안되는 어려움도 겪었고, 어떤 때는 그곳에 있는 있는 동안 내내 몸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메주고리예를 찾았다. "한번은 브라이언이 저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심한 독감에 걸려 정말 건강이 나빴지만 성모님께 제 고통을 그대로 봉헌했습니다. 그때는

늦은 여름저녁으로 메주고리예는 순례 온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간이었죠. 성당 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성당 밖에서 미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못알아 듣는 크로아티아 말로 긴 강론이 시작되고 저는 '준주성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십자가산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십자가 뒤로 붉게 빛나는 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상상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기적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태양의 기적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기적을 보려는 기대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던 때 였지요.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기적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붉은 빛 속에서 성모님이 보였습니다. 성모님은 엄청나게 크셨고 양쪽 옆에서 그분의 베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브라이언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기 좀 봐" 하고 간신히 말할 뿐이었지요. 한참 후 성모님께서 동그란 나선형 모양의 연기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건 내가 본것이 아닐 거야. 환상을 봤나봐" 라고 말할 때, 다시 똑 같은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을 쳐다 보니 그곳에는 안토니오 성인을 보았습니다. 저는 왜 안토니오 성인을 보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메주고리예를 찾았을 때, 성 야고버 성당안에는 성모님 성상과 안토니오 성상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의 매릴라의 삶

지난 15년 동안 매릴라는 19개의 앨범을 발표했다. 두차례 뮤직 비디오상을 받았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성가를 수록한 노래책도 출간했다. 원하는 분들은 매릴라의 웹사이트에서 앨범에 수록된 노래중 일부를 들을 수 있다. **M**

www.Marilla.com

(www.medjugorjemir.org에서)



"성모님! 하례하나이다"

"오월 십삼일 오늘 이리아 골짜기 동정녀
마리아 나타났네. 아베 아베 아베 마리아
~ 아베 아베 아베 마리아~."
(파티마 성모 노래의 일부)

불교 신자인 남편과 개신교 신자였던 나는 치열한 종교 전쟁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남편은 불명을 받을 정도로 불심이 깊었고, 난 개신교 신자로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며, 남편이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있었다. 장남인 남편과 만며느리인 나에게 있어 집안의 제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개신교 신자로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나는 그럴 수 없다" 며 합의 이혼을 요구했다.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성당을 가면 예수님 믿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그날도 새벽 기도에 가서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해야 할지 주님께 울부짖으며 탄원했다. 긴 울음이 멎춘 후에 마음 깊은 곳에서 '네 마음을 바꿔라'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 그 음성이 공명처럼 내 마음을 울렸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철없이 새벽 기도에 따라왔던 어린 딸이 교회를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울부짖듯이 외치는 소리였다.

"엄마~. 성당으로 가. 거기에 가도 예수님, 하느님이 있다고 했잖아~. 아빠랑 이혼하면 난 죽어 버릴 거야!" 그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 내가 마음을 바꾸자. 오늘 한 번 성당에 찾아가 보자. 젓먹이를 업고, 일곱 살과 다섯 살, 두

아이의 손을 붙잡고 성당을 찾아갔다. 성당에 선 저녁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성당 뒤쪽에 앉아 있는데 "천주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말씀이 '캉'하고 마음을 울렸다. 그래, 내일부터 빠짐없이 성당에 나와 보자. 기도가 갈급했던 난 천주교의 기도 방식을 배워야 했다. 그것이 묵주 기도였다. 이웃 자매에게 기도 방법을 배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묵주 기도 15단을 바치며 매일 미사에 참

례했다. 난 다음 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고, 뒤이어 남편과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후 몇 년은 순례하는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고 2박 3일간 가정기도를 했다. 그때 구역과 반 식구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해줬고, 수많은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 묵주 기도와 매일 미사로 집안 식구들의 구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90세가 된 시할머니, 60세가 넘은 시어머니, 시동생들, 시누이들, 친정 동생들이 세례를 받으며 천주교 신자 집안이 됐다. 현재 40여 명의 친인척이 세례를 받았고 20여 명의 대녀를 두게 되었다. 지금 예비신자 교리를 받는 동생도 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30년 동안 소망했던 '파티마 성모님'을 찾았다. 온 가족이 함께 성지 순례를 하면서 파티마에서 성모님을 뵈었다. 고해 성사를 보고, 묵주 기도를 드리고,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영광을 누렸다. 꿈같은 일이 실현된 것이다. 하늘의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M**

(<http://qabbs.catholic.or.kr/dptj>)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비의 희년 전대사 및 성모님 발현지 성지순례



메주고리에 성모님 35주년 | 파티마 성모님 발현 99주년

메주고리에 / 파티마 / 루르드 / 드브로브닉 순례비 \$3,190 / 2016년 10월 24일 ~ 11월 5일 (13박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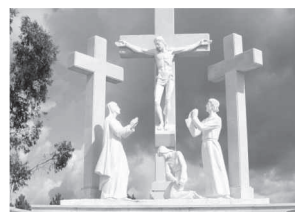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발현산, 십자가산, 청십자가, 부활청동상, 티할리나, 빛의 신비, 고 슬라브코 신부님묘지, 메주고리에어머니마을, 체나폴로, 목격증인들과의 만남 및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의 강론, 메주고리에의 치유음악과 함께하는 저녁예절 - 묵주기도 거룩한 미사, 치유예절 십자가 경배, 성체현시 성시간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 경당, 촛불행렬, 로사리아 대성당, 십자가의 길, 미카엘 대천사 발현장소, 루시아 수녀와 복자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의 생가와 무덤참배, 성모님께서 여섯번 발현하신 장소, 십자가의 길, 속죄의 길



루르드

루르드의 무덤시대 성당, 로사리아 대성전, 성체 거동 및 촛불행렬, 성모님 발현동굴, 기적수 침수, 벨라뎃따 성녀 생가, 마시비엘 동굴, 비오 10세 성당, 십자가의 길, 기적의 메달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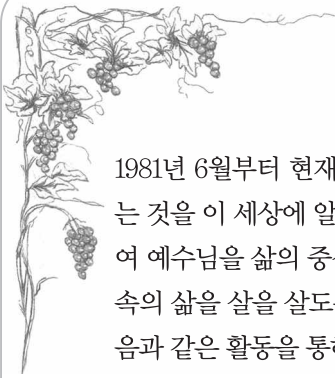
드브로브닉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 목의 치유 브라시오성인에게 봉헌된 1700년된 성실바노성인의 부패하지 않은 유해가 모셔진 성당 방문, 아기예수님의 강보와 성십자가조각 및 많은 성인들의 유물이(130명이상) 모셔진 주교좌 대성당 방문

문의

Tel. 201-945-4777 Cell : 917-626-4314
E-mail: qpmm.org@gmail.com / www.qpmm.org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무료보급과 "신앙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사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체입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에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5. 메주고리에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6. 메주고리에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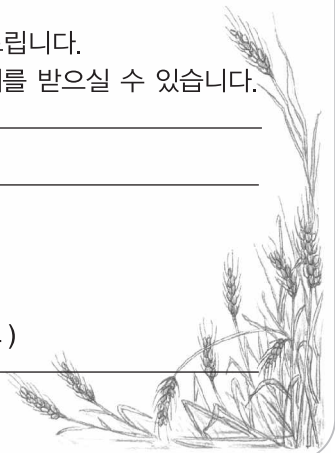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2.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3. 회원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미사와 성모송 천 번 기도봉헌과 미사를 해드립니다.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발현 목격증인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안내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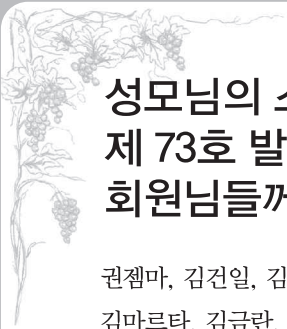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031201467) Acct.# (2000012394184)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 카톡 평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CP) : _____ E-mail : _____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제 73호 발행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재마, 김진일, 김기민, 김정임, 김정희, 김단심, 김테레사, 김두한, 김로사, 김마텔라,
김마르타, 김금란, 김벨라멧다, 김봉녀, 김순정, 김상기, 김성옥, 김세록, 김세실리아,
김스텔라, 한로사&한만성, 김수미, 김신디아, 김영자, 김영숙, 김영례,
김재국, 김제니, 김정자, 김정혜, 김정희, 김재문&김준옥, 김효정, 김화성, 김은남,
강로사, 남정탁, 도루시아, 민명주, 민영희, 민안드레아, 민금선, 민헬레나, 박경희, 박
기영, 박기애, 박마리아, 박병순, 박사라, 박지선, 박요세피나, 박효정,
박세실리아, 박소피아, Sr박순자, 박병례, 박영미, 박영순, 박화영, 박홍숙, 박노성,
박경은, 백안셀모, 백마리아, 소재성, 선우 말가리다 마리아, 서영희, 서베로니카, 석헬레나,
성시용, 손경덕, 송마리아, 송명숙, 신태남, 신현철, 신혜원, 안순상, 안혜련, 안영순, 오명화,
오점희, 원명희, 윤채영, 이글라라, 이마리아, 이명진, 이송주, 이순예, 이순세, 이순자, 이석용,
이병성, 이윤영, 이은경, 이정옥, 이종천, 이일영, 이호인, 임세레나, 임영규, 엄엘리사벳, 정찬례, 정세현, 장민현,
장봉숙, 장세실리아, 장한순, 전현숙, 정미연, 정미란, 정만진, 정원숙, 정정옥, 정주하, 조안나, 조은자, 지니김,
지어거스틴&글라라, 진도미니카, 진은필, 최경화, 최규숙, 최근화, 최수산나, 최인순, 최은주, 최혜선, 최희순,
최미카엘라, 표레지나, 한수지, 한만승, 허명순, 홍루시아, 홍복희, 홍연수, 홍영선

Luke Y. Sunwood, Rigoni Lisa, Paul & Mary Lee, Henry Yerger, Eileen K. Cho, Sang S. Goode,
Soon Cha Patricia, Lake Chong, Joung Lee, Tak U. Lee, Mee R. Sun J. Valenta, Mullins Insuk, Young S. Sin,
Anna Chung, Joo Kim, Chong S. Arguello, Joung Lee, Regina Sun Kang, S H Ryu, Columba Kim,
Barbara Alonzo, John Lee, Angela Bertke, Agatha Phillips, Grace S. Kim, Ruoff, Anne Lou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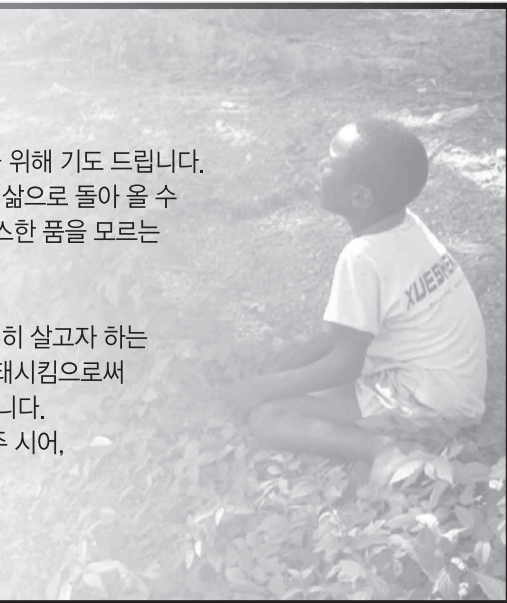


무관심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모님,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특히 부모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죄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에게서 십자가를 내려 주시어 성령의 힘으로 생명의 삶으로 돌아 올 수
있게 하소서. 성모님, 특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모님, 성모님께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어 그들에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을 회복시켜 주소서. 성모님, 또한 자기 자녀를 버리거나 낙태시킴으로써
자신의 가슴을 무덤으로 만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기도 드립니다.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소서. 그 어머니들의 가슴에 생명을 부어 주 시어,
이제 더 이상 무덤이 아닌, 생명의 촛불이 되게 하소서.

- 슬라브코 바리바리치 십자가의 길기도에서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성모님 발현지 성지 순례



- **메주고리에, 파티마, 루르드, 드브로브닉,**
순례비 : \$3,190 | 2016년 10월 24일 ~ 11월 5일 (13박 14일)



메주고리에

발현산, 십자가산, 청십자가, 부활청동상, 티할리나, 빛의 신비, 고 솔라브코 신부님묘지, 메주고리에어머니마을, 체나콜로, 목격증인들과의 만남 및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의 강론, 메주고리에의 치유음악과 함께하는 저녁예절 - 목주기도 거룩한 미사, 치유예절 십자가 경배, 성체현시 성시간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 경당, 촛불행렬, 로사리아 대성당, 십자가의 길, 미카엘 대천사 발현장소, 루시아 수녀와 복자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의 생가와 무덤참배, 성모님께서 여섯번 발현하신 장소, 십자가의 길, 속죄의 길



루르드

루르드의 무염시대 성당, 로사리오 대성전, 성체 거동 및 촛불행렬, 성모님 발현동굴, 기적수 침수, 벨라뎃따 성녀 생가, 마시비엘 동굴, 비오 10세 성당, 십자가의 길, 기적의 메달 박물관,



드브로브닉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 목의 치유 브라시오성인께 봉헌된 1700년된 성실바노성인의 부패하지 않은 유해가 모셔진 성당 방문, 야기예수님의 강보와 성십자가조각 및 많은 성인들의 유물(130명이상) 모셔진 주교좌 대성당 방문

- **메주고리에, 파티마, 이태리, 바르셀로나, 드브로브닉,**
순례비 : \$3,750 | 2016년 9월 4일 ~ 18일 (14박 15일)

-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35주년 및 드브로브닉**

2016년 10월 27일~11월 5일 (9박 10일) 순례비 : \$850 + 각지역 왕복 항공료 (\$620 NY / \$680 LA)

문의 T. 201-945-4777 C : 917-626-4314 www.qpmm.org